

중앙아시아에서 드리는 6월 사역 소식

이곳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야간 통행금지와 주간 통행 제한을 통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가까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점과 약국, 은행, 병원만 거주확인서와 신분증, 통행 목적을 소지한 상황에서 제한 이동만 허용하던 규제가 5월부터 단계별로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8일부터는 종교시설의 집회도 허락이 되어 현지교회에서는 다시 예배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유흥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는 유효하고, 도시간 이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제한조치로 인해 경제 생활과 직업 환경에 큰 어려움이 있기에 계속 봉쇄와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장 상인들과 근로자들의 일상 경제 생활을 재개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방조치와 거리유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예전의 일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거리에서 일상 근무자들도 마스크 착용을 별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최근 확진자들이 3~400여명을 오르내리고 있어서 확산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키르기스 한국대사관과 한인회에서는 귀국 혹은 방문 희망자들을 위해 3차에 걸쳐 전세기를 마련하여 시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도 미국이나 호주 등 이곳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항공 노선이 적절하지 않는 이들도, 한국을 통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포함하여 운항되었습니다.

3개월 가까이 이동과 활동에 대한 제한과 예방을 위해 현지 직원들의 근무도 거의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있고, 한글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모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문자와 전화, 그리고 이메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주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2013년 이후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몇 개월 정도라도 안식년을 통해 한국에 머물면서 후원자분들도 만나고 교회도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현지에서 지내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한편으로 쉬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에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대하지만,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자유롭게 만나고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상에서의 건강과 일상, 일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일상의 예배와 거룩한 삶의 긴장이 아버지의 은혜 중에 날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1. 현지 공동체

키르기스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6월 8일부터 제한조치가 풀린 이후로 50%가 증가하여 현재 4천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키르기스 인구가 6백만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공동체에서는 그동안 3개월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며 지내왔었는데, 지난 14일부터 집회가 허락되어 공동체 모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대부분의 공동체 가족들은 큰 기대와 갈급함으로 예배와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목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키르기스는 만날 때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여 예배 첫날부터 점심을 준비하는 등 모두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



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와 신앙훈련을 진행하며 지내오던 터라,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만남과 예배 모임에 갈급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허락되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와 확산 증가세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했던대로 집회가 허용된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결국 주말 통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 중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한명은 신실한 키르기즈 자매의 어머니가 공항에 근무하며 방역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치료센터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두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는데 다행히 잘 치료되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결혼한지 3-4년 정도된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러시아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가 감염되어 모스크바의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화 통화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걸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명은 고등학생인데 대중교통 수단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지체들간의 소통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속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일상과 삶, 예배와 영적인 삶이 모두 함께 긴장감 속에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어 교실(드림 아카데미)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중순 이후 키르기즈 주요 도시의 학교들에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학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드림아카데미도 교육기관의 방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함께 휴강을 했다가 4월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선생님들도 키르기즈의 인터넷 사정이 많이 좋아져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과 상황이지만 약 2개월 정도의 특별한 준비와 진행으로 계획했던 강의를 잘 마무리하고 학기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분들과 학생들 모두 여름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했었지만 점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학생들과의 좋은 소통과 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

노숙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소망의 집'의 가족들은 코로나19로 활동은 어려워 주로 시설에 머무르며 지내야 했습니다. 보통의 때보다 구청과 군부대, 주변에서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목사가 시설 구 건물 앞 터에 식당겸 모임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칸을 늘려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망의 집 가족들과 함께 짓고 있기 때문에 재료만 구입하면 벽체와 지붕을 얹을 수 있어서, 우선 구조물 재료를 공급하여 벽체와 지붕을 올리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위해 좋은 지도력과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 알렉산드르와 소망의 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근무환경으로 복귀하였지만, 시장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고, 키르기즈인들은 대가족 중심, 씨족 중심으로 살아온 문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서로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저희 현지 직원들이

사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저희도 생활비를 나누어 약 20여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약간의 밀가루와 양파만 남아있다는 한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르밧 과부를 구한 엘리야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너무나 딱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까지 구제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4. 번역 & 출판 사역



그동안 15년 가까이 연합신학교의 교수로 사역하면서 번역팀의 리더로 수고를 많이했던 로빈 교수가 이번에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관절 부위의 수술로 아직 보행의 불편함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이 은퇴를 앞당기게 되어 1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이 여전히 통제된 가운데 귀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주에 한국행 특별전세기를 통해 인천을 거쳐 호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학교에서 교수와 이사로 섬기며, 특별히 올바른 성경해석과 전달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전 확장되었던 뉴질랜드 사역자 에드워드와 함께 존스토트가 설립한 랭햄파트너십의 강의 지원을 이끌어 협력해 왔고, 신학교 도서관의 확장, 최초의 키르기스어 신약주석 번역 출간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신약 주석 시리즈는 총 13권 중에 8권을 출간하고 아제 4권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완성하지는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호주에 돌아가서도 온라인으로 번역 감수 작업을 도우며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현재 신약주석 시리즈 13권 중 9번째 주석(옥중서신)이 인쇄소에 넘겨져 인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작업이 중지되어 있었는데, 인쇄소 작업이 재개되어 조만간 마지막 확인 후 사인을 하면 인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일곱문장으로 읽는 구약"을 저자와 영국 IVP로부터 5년간 500권 인쇄할 수 있는 판권을 무료로 허락받아서 감수 작업 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학교 사역자들과 현지 번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훈련 중인 아셀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무실 작업보다는 집에서 번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주고 있고, 현지 신학교 교수인 디아나(벡뚜르목사 사모)와 함께 팀으로 번역과 신학적인 부분을 나누며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셀은 남편과 함께 저희가 이곳 키르기스에 왔을 때부터 만나 알고 지내는 20년 지기 현지 부부입니다. 저희가 리더모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지역 공동체의 리더로 섬겼는데, 지금도 신실하게 주일학교 리더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미래의 좋은 번역가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삶의 전 영역이 코로나 19의 영향하에 놓여있음을 다시 실감케 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의 상황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정헤브론, 김엘레나 드림